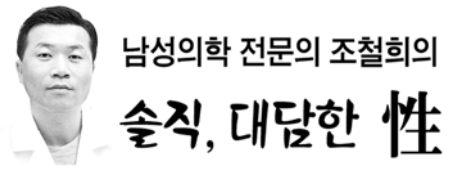


86.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에 들어갔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중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신분증 ② MP3 ③ 전자사전 ④ 휴대용 전화기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르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남자는 '하고 나면' 쉬어야 한다

남자는 여자와 달리 한번 사정을 해버리면 어느 기간 동안은 아무리 강한 성적 자극을 가해도 다시 발기가 안 된다. 이 기간을 재충전기 내지는 재감응기라고 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길어진다. 사춘기 때는 주로 자위행위를 많이 하지만 이때는 하루에 삼하면 수차례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세월은 흘러서 결혼도 하고 40대 50대 들면서 한번 사정을 하면 수일 후에야 재발기가 가능하며, 70대의 노인인 경우는 1주일 길면 1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관계를 보다 자주 갖기를 원하는 노년층의 경우 성관계를 하되 사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육방비결의 접하되 사정을 하지 않는 접이불투법). 하지만 일부 노년층에서는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발기된 음경이 일단 이완되었다가 다시 발기되려면 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

며 사정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사정이 쾌감을 느끼게 하는 사출력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무지한 남성들은 사정 후에 바로 발기가 되지 않으면 매우 당황해 하고 고민스러워하며 때로는 내가 혹시 임포텐스(발기부전)가 되지 않는지를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배우자는 뭔가 의도를 해서 그렇지 않을까 해서 남편을 의심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은 억울하다고 부인을 동반하고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가장 발기부전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필자를 찾아온 환자의 경우 결혼한 지 3년 된 30세의 남성으로 1주일에 20번 이상 사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30%는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환자는 약간의 불안장애로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면 본인의 사정능력 이상으로 많은 횟수의 사정을 했다고 설명하여 그 정도의 성능력이라면 매우 탁월한 경우라고 설명을 해주니 그때야 만족을 하고 돌아갔다. 여성의 무지에서 결국은 과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생생리상 여성은 남성과 달리 오르가즘을 느낀 후 재충전기가 따로 없으며 성적 자극을 계속하면 즉시 다시 오르가즘에 이를 수 있다. 사실상 여성의 오르가즘은 무한대로 체력이 달려 더 이상 성관계를 계속 하지 못할 때까지 오르가즘을 몇 번이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남성도 이런 성적 패턴을 갖고 있으라고 짐작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가 과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예를 들면 남성은 26세, 여성은 28세로 여자가 연상이었으며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직

장여성이었다. 신혼 여행기간을 포함해서 10일간 동침하면서 매일 2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여자 측에서 애무를 하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발기가 안 되어 포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가 어설플른 성지식으로 "젊은 사람은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발기조차 안 되느냐?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러나 남자는 여러 가지 검사와 정황으로 완전 정상이었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여 망신당한 경우이다. 한번 사정한 후에 발기가 왜(발기를 시켜서) 다시 사정하려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히 조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는 사정이 빠르고 2번째 성관계시 사정이 길어지는 이유다. 따라서 2번째 성관계에서 만족스러워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려고 하나 나이가 들며 따라서 첫 번째 사정 후 발기가 안 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40대 초반에서 조루증을 많이 호소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천문만비뇨기과 원장>

함께 풀어봅시다 < 2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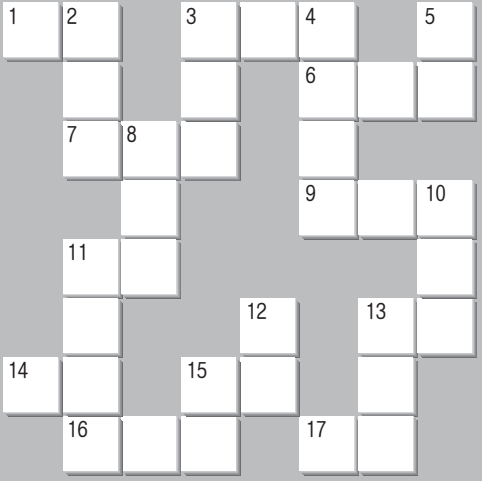
→ 가로풀이

-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놀리어 굴복함. 3. 우리나라의 말과 글로 된 고유의 문화,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6.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7. 선악이나 가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자리. 또는 배우 등에서 심판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 9. 높이가 30미터 정도까지 자라는 식물로 줄기는 곳곳하고 속이 비었으며 두드러진 마디가 있다. 어린순은 먹는다. 11.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음. → 불량. 주식투자는 ~ 기업을 하는 것이 좋다. 13. 두 개의 직선이 한 직선과 각각 다른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두 선의 바깥쪽의 각. → 내각. 14. 나타내거나 또는 나타내서 보임. 고대 국가의 ~. 뜻하지 않은 그의 ~이 우리를 몹시 놀라게 했다. 15.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영업용 승용차. 16. 시험 문제의 해답을 쓰는 종이를 일컫는 말. ~를 백지로 제출하다. 17. 돌 이상의 땅 가운데 땅이 되는 땅. → 큰밭.

↓ 세로풀이

- 양감음하려는 마음. 그는 ~에 불타 오랫동안 무술을 연마했다. 3. 나라에서 설립해 직접 관리? 운영하는 대학. 서울대는 ~다. 4.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의 사자성어. 아이는 아빠가 선물을 사오기를 ~하고 있었다. 5. 기업 등에서 종업원이나 인원을 줄임. 이번 ~ 바람으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 8. 일정한 기간에 상품 등을 파는 양. ~이 꾸준히 증가하다. 10. 아무 감각이 없음. 11.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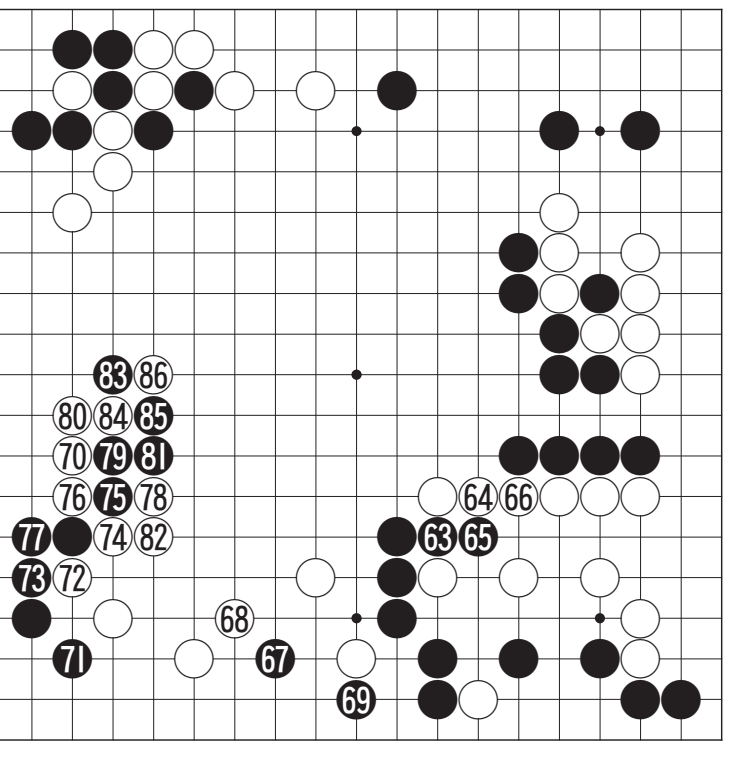


현명한 대답을 이르는 말. 그야말로 ~이로군. 멋진 대답이었어. 12. 가리켜 보임. 일러서 시김. 또는 그 내용. ~ 사항. 그들은 상부의 ~를 기다렸다. 13. 다른 자식 없이 단 하나뿐인 딸을 귀엽게 이르는 말. 또는 다른 여자 동기가 없이 하나뿐인 딸. 15. 집을 지을 땅. ~ 개발. ~를 조성하다.



<함께 풀어봅시다 272회 정답>

- ▲지난 주 정답자
서순아·광주시 남구 백운 2동 김화주·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최강부 준결승 2국 白 심재욱 6단 黑 노기철 5단

우변 백이 살아 버리자 노기철 5단은 흑 67로 침입하여 백에게 대가를 요구한다. 이때 심재욱 6단은 백 68로 두어 알기쉽게 응수하자 67이 성공했음이 곧바로 드러난다. 흑 69로 넘어갔으나 생각보다 작았다. 이 수로는 좌변에 두칸 벌리는 것이 컸다. 심재욱 6단이 특유의 빠른 발로 70으로 협공해가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흑 71부터 77까지는 협공했을 때의 정석이다. 그러나 현재는 흑이 죽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다는 것이 정석이다. 노기철 5단이 79로 즉각 놀러간 것은 당연했는데 다음 81로 꼬부린 수가 무거운 수로 악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끊고 3으로 모는 것이 리듬을 살리는 수법으로 행마의 요령이었다. 백 4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5로 나가 '가'로 쫓히는 수와 흑이 맞보기가 된다. 실전에서는 백 86으로 끊는 초강수가 성립하여 흑이 곤란해졌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홍민표, 농심배 2연승 좌절

홍민표 6단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회 농심신라배 세계바둑최강전 본선 3국에서 중국의 왕시 9단에 게 231수 끝에 백 불계패했다. 2연승에 도전했던 홍 6단은 이날 초반 주도권을 빼앗긴 뒤 시종고전한 끝에 무릎을 꿇었다. 홍 6단을 꺾은 왕시 9단은 이튿날 열린 대국에서 일본의 고노리 9단을 240수 만에 2집 반으로 제압, 2연승을 달성했다. 왕시는 오는 11월26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2차전에서 한국의 4장과 대국한다. 이 대회는 한·중·일 국가대표 5명이 출전, 연승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승 상금 1억5천만원./윤영기기자 penfoo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음 9월 12일 己卯)

36년생 沈滯現狀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손어사람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48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60년생 계획이 계속 미루어진다. 72년생 첫 문서잡고 눈물 날라. 84년생 枯木回春이니 더욱 더 잘 가꾸라. 행운의 숫자 : 26, 29

37년생 뒷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49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1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나무리가 시원하지 않다. 73년생 항상 인연을 조심하라. 85년생 작은 것 얻고 큰 것을 잃는다. 행운의 숫자 : 30, 36

38년생 업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50년생 희망의 새아침을 만나는 격이니 계획을 세워라. 62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봐라. 74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체해도 괴로워마라. 행운의 숫자 : 31, 41

39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1년생 광범한 하루나 苦難은 있다. 63년생 투자는 하지 말고 신규 사업은 파란바닥의 苦難은 없으리라. 75년생 여성을 만날 땐 꼭 결혼한 선배와相談하라. 행운의 숫자 : 42, 43

40년생 자급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할 때다. 52년생 막힌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인쇄해야 한다. 64년생 안도의 글자를 돌리니 再充하라. 76년생 다름은 없지만 득도 없다. 행운의 숫자 : 01, 02

41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53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봐라. 65년생 齋食 : 고인이 생기기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77년생 후배와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10, 20

42년생 하늘 한번 우러러 보라. 54년생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점검 해봐라. 66년생 길사가 계속 될 것이니 손어사람의 말을 생각하라. 78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12

43년생 남자는 처가 쪽을 여자는 시가 쪽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 55년생 자녀로 불lenen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67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하리라. 79년생 보름은 시집하고 부부간에 대화하라. 행운의 숫자 : 04, 11

44년생 개운치가 없으니 운동을 해야 한다. 56년생 부부의 일진 이 예상되니 서로 사랑하라. 68년생 유혹 속에 虛空歲月 한탄 하라. 80년생 현재나 근친간의 말썽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봐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5, 10

45년생 주변에서 小爭이 일어날 수도 있다. 57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69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라. 81년생 절대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실리위주로 整理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6, 09

46년생 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으니 부부간의 등산으로 氣血投訴를 시도해 보라. 58년생 처나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7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라라. 82년생 옛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행운의 숫자 : 07, 08

47년생 사랑은 이제부터다. 59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언쟁은 예방과살라. 71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생기기니 즐거운 이다. 83년생 동기가 있게 전진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7, 18

www.cafe.daum.net/sajj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1016></p> <p>I forget my camera in the cab. 제 카메라를 차에 두고 왔습니다.</p> <p>A : I forgot my camera in the cab. B : Do you remember the car number? A : No, I don't. But the color was yellow. B : Please give me your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We'll call you if your camera is found.</p> <p>A : 제 카메라를 차에 놔두었는데요. B : 택시 번호를 기억하세요? A :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 색깔은 노란색이었어요. B : 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찾게 되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p> <p>* cab=taxi * We'll call you=We'll contact you * Please give me ~ : 저에게 ~를 알려주세요.</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016></p> <p>今日(きょう)は小食(しょうしょく)だね。 오늘은 조금 먹네요.</p> <p>A : 今日(きょう)は小食(しょうしょく)だね。どうしたの。 B : 昨日(きのう)ラーメンの食(た)べ放題(ほうだい)食(く)って、胃(い)の調子(ちょうし)がわるんだ。 A : 大食家(たいしょくか)の高橋(たかはし)君(くん)も、今日はさすがに食(た)べられないっていうわけか。 B : うん。何事(なにごと)もほとんどした方(ほう)がいいね。</p> <p>A : 오늘은 조금 먹네요. 무슨 일 있어요? B : 어제 라면을 질러도록 먹어서, 위 상태가 좋지 않아요. A : 대식가인 다카하시군도 오늘은 역시 먹을 수 없다고 하는군요. B : 응, 모든 일은 적당히 하는 게 좋지요.</p> <p>食(た)べ放題(ほうだい) : 먹고 싶은 대로 먹을 食(く)う : 먹다(食べる보다 거친 말) 調子(ちょうし)가わるい : 상태가 좋지 않 さすがに : 과연, 역시</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풍구워 <206></p> <p>航空公司售票处吗 항공사 매표소 인니까?</p> <p>A : 喂, 航空公司售票处吗? Wéi, hángkōng gōngsī shòupiaochù ma? 喂喂, 항공 회사售票 所 在哪儿 呢? B : 是的。 Shì de. A : 订两张到上海的机票。 Dìng liǎng zhāng dào shànghǎi de jīpiào. 왕 2장 상 해오 상 해오 티켓 2장 票. B : 要公务舱还是经济舱? Yào gōngwùcāng hái shì jīnjīcāng? 아오 공 무 상 해오 스 정 차 票? A : 어로세요, 비행기표 예약센터 인니까? B : 네, 맞습니다. A : 상해가는 표 두 장 예약 하고 싶습니다만. B : 비즈니스석 아세요? 일반석 아세요?</p> <p>售票处 [shòupiaochù] 매표소 公务舱 [gōngwùcāng] 비즈니스석 经济舱 [jīnjīcāng] 일반석</p> <p><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7-8</p>	<p>한자 이야기 <633></p> <p>鷄卵有骨(계란유골) 닭 계, 알란, 있을 유, 뼈 골</p> <p>계란유골(鷄卵有骨)은 계란에 뼈가 있다는 의미로, 모처럼 계란을 얻었는데 껍은 계란이라 먹을 수 없음을 말한다. 즉 운수가 지극히 나쁜 사람의 일을 비유한다. 이 말은 본래 세종 때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황희(黃喜)의 일화에서 유래한다. 황희는 매우 검소하여 생활이 매우 가난하였는데 임금이 이것을 딱하게 여겨 한 묘안을 생각해 냈다. 즉 다음날 아침 일찍 남대문을 열면서 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황희에게 사다 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날은 뜻밖에도 새벽부터 폭풍우가 몰아쳐 종일토록 맞지 아니하므로 문을 드나드는 장사치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가 어두워져서 문을 닫으려 할 때 한 시골 노인이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다. 약속대로 이것을 황희 집에 보냈고, 황희는 이것을 삶아 먹으려고 하였으나 알마다 풀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松南雜議)</p> <p>여기서 "박복한 놈은 모처럼 선물로 얻은 달걀도 풀아 있다"는 속담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사자성어'처럼 한역(漢譯)한 것이 '계란유골'이다. 문제는 '풀아 있다' 부분을 '유골(有骨)'로 바꾸면서 한글의 본뜻이 사라지고, 마치 부화하기 직전의 병아리가 계란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어 버렸다.</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